

원칙에 충실한 삶을 살아온

동물약품협회 서정범 회장



시골버스와 화물 자전거에 몸을 싣고 한여름 무더위 속에서 무거운 약품가방을 한쪽 어깨에 맨 채 농장을 찾아다녔던 기억을 서정범 회장은 되살린다. 땀에 흠뻑 젖은 셔츠에 넥타이를 매고 농장마다 찾아다니며 동물약품의 필요성에 대해 열변을 토하고 이해시키기 위해 뛰어다녔던 서 회장의 젊은 시절, 그 때가 있었기에 현재의 우리 축산업계와 동물약품업계가 있는 것인지도 모른다. 언젠가, 누군가는 했을 일이라고 서 회장은 겸손히 말하지만, 지금도 있는 많은 축산단지의 설립과 양돈단지로서 자리잡은 이 당시 나환자촌 개발의 주역이 바로 서 회장이다. 아무것도 없었던 동물약품업계에 첫발을 내디딘 후 양축농가 계몽과 선도를 지상최대의 과제로 생각하고, 꾸준히 지금까지 동물약품업계를 이끌어 온 서정범 회장은 축산업계의 큰 조력자이자, 동물약품업계의 살아있는 역사이다.

국내 동물약품업계의 첫 장을 매꾼 장본인

서정범(徐廷範, 68세) 회장은 현재 동물약품협회 회장직을 맡고 있으며, 그 이전에는 동물약품중소기업조합 이사장을 5년간 직임하는 등 동물약품업계의 대표적인 인물이다.

또한, 그는 현재 '제일화학'의 대표이사로서 양축가들에게 품질좋은 약품을 공급하기 위해 부단히 노력하고 있는 기업가이기도 하다.

6.25에 참전하고 늦게서야 대학에 들어간 서정범 회장은 1960년에 수의과대학을 30세에 졸업하고, 자신의 인생 방향을 결정했던 유한양행 농축부에 들어갔다. 수의전공에서 선택할 수 있는 '진료'와 '약품' 두 가지중에서 아직 자리잡히지

않았던 동물약품의 보급을 선택한 것이다.

서 회장이 양돈과 인연을 맺은 것도 이때부터라 볼 수 있으며, 그 당시 전문 양돈업은 극히 미약하였고 축산분야의 동물약품 사용은 규모화 된 양계장 일부에서만 갓 시작되었던 시기였다. 60년대 초 우리나라의 약품회사 농축부는 유한양행이 유일하였으며, 동물약품업계의 첫 주자 였다고 서 회장은 이야기 한다.

그 후 60년대 후반기가 되면서 배합사료가 이 땅에서 생산되기 시작하였고, 이에 따라 사료 첨가제의 사용이 이루어지기 시작하면서 본격적으로 동물약품사업이 활성화 되기 시작하였다.

이렇게 국내 동물약품의 첫 장을 메꾸기 위해서 회장은 뛰어다녔고, 유한양행에서 15년간을

근무하면서 얻은 지식과 자신의 뜻을 담아 1977년 동물약품 전문업체인 지금의 '제일화학'을 설립하고 오늘날까지 동물약품업을 이끌어 오고 있다.

한편, 국내 양돈은 70년대 초가 되어서야 약품을 제대로 사용하는 전문 양돈장이 생기기 시작하여, 78년 말 돼지파동 후 그 수가 급속히 늘어나 자리를 잡아나가기 시작했다고 한다.

가장 기본적인 일에 충실할 때 가장 좋은 결과 나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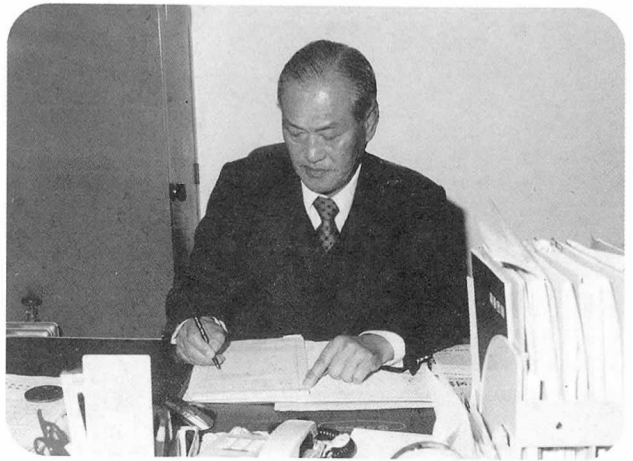
서정범 회장은 "원칙을 지키자"라는 말을 항상 강조한다. 그리고 원칙을 지킨다는 것이 쉽지 않은 일이라고 덧붙인다.

모든 일의 해결방안은 원칙에 충실하는 것이며, 기본이 철저히 지켜질 때 그 이상의 발전도 가능하다고 강조한다.

올 한해 국내 동물약품업계는 피부로 많은 것을 느껴야 할 것이며, 그 어느때 보다도 생존경쟁이 치열할 것이라고 서 회장은 걱정어린 이야기를 전한다. 이런 때일수록 기본에 충실하게 대처해 나가야 살아남을 수 있는 것이다.

외국의 원료를 수입해서 믹서해 판매하는 쉬운 길보다는, 멀고 험하더라도 자신의 약품을 개발하여 국제적인 경쟁력을 가지는 것이 중요하다. 미리부터 준비가 있었어야 하지만, 지금이라도 연구와 개발에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서 회장은 강조한다.

서정범 회장은 "요즘 특히 세계의 다국적 기업의 국내진출이 많습니다. 지금의 시기가 특별하다기 보다는 그 때가 온 것이겠지요. 약품 원료를 외국에서 수입해 약품을 판매하는 형태로는 경쟁에서 이겨나가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수입에만 의존한 기업은 살아남을 수 없다는 것이죠. 자신만의 약품을 가지는 것이 중요한 안건이며, 동물약품업계가 발전하는 길이기도 합니다. 저희



▲사무실 한편의 조그만 회장실은 그의 합리적인 사고를 보여준다. 업무에 열중하고 있는 서정범 회장.

'제일화학'에서는 지난 4~5년 동안 더욱 더 많은 자신만의 원료를 갖기 위해 노력해 오고 있습니다"라고 말한다.

또한, 양축가 또한 마찬가지로 가장 기본적인 것을 지켜줄 것을 당부했다. 좋은 약품을 사용해서 생산성을 높이는 것에 앞서, 축사의 위생상태부터 점검해 보고 개선시키는 것이 우선 되어져야 한다고 강조한다. 사료업체 또한 배합사료에 항생제나 약품투여를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양질의 원료가 가장 기본이라고 말한다.

자체 약품개발로 앞서가는 '제일화학'

서정범 회장에 의해 1977년에 설립된 '제일화학'은 현재 62명의 사원들이 근무하고 있으며, 작년 한 해 매출액은 180억에 달하고 있다. 안산에 공장을 겸한 본사가 있으며, 서울 서초구 서초동에 사무실을 두고 있다.

제일화학은 '품질관리'와 '연구개발'에 경영의 초점을 맞추어 최선을 다하고 있으며, 연구개발은 또 '진단'과 '신물질개발' 두 가지로 나누어 추진하고 있다. 또한 제일화학은 최근 적지않은 자금을 들여 회사내 컴퓨터 시스템을 완벽하게 갖추고, 홈페이지를 제작, 운영하는 등 정보에 앞서가는 제일화학이 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인화"를 경영방침으로 내세우는 제일화학은

사원들의 성실과 하나됨을 증시하고 있으며, 동물약품업계 중 오래된 직원이 가장 많음을 자랑하기도 한다.

제일화학은 일찍부터 많은 고유 약제를 얻기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현재 5개 정도의 약제에 대해 특허권을 가지고 있다. 대표적인 고유 원료인 효소배양물 OTC는 제일화학에서 10년 전부터 개발하여 지금은 일본 등지에 적지않은 양을 수출하고 있다.

양축가에 휴약기간준수를 당부

서정범 회장은 동물약품협회 회장으로 있으면서 요즘과 같이 어려운 때를 만난 것이 아쉽다며, 같은 협회의 회원들이지만 부인할 수 없는 경쟁상대인 회원들이, 모두 경쟁은 하되 한 사람의 낙오자도 없이 다 같이 살아남을 수 있으면 하는 바람을 가지고 있다.

IMF 이후 다시 내리지 않는 약품값에 대한 필자의 질문에 서 회장은 지금의 실정을 설명하면서 “살아남기 위한 경쟁이 어느 때 보다도 치열한 때에 의도적으로 값을 높게 받을 수는 없다”고 말하고, 다만 환율인상으로 인한 원가상승과 수요부족 등의 기본적인 원인이 상승했고, 대리점 판매가 주류를 이루는 동물약품 판매 유통구조상 대리점에서 낮은 가격으로 판매하지 않고 있는 경우가 있을 수 있다고 덧붙였다.

또한, 서 회장은 항생제 등의 잔류문제에 관해 휴약기간을 꼭 지켜줄 것을 축산농가에 당부하면서, 농가에서 기간만 잘 지켜준다면 쉽게 극복할 수 있는 일임을 강조했다. 양돈산업의 미래는 수출이며, 이를 위해서는 휴약기간 준수가 반드시 지켜져야 한다. 돼지콜레라 박멸 또한 이와 병행

해서 수출을 위해서는 최우선적으로 이루어져야 하며, 서 회장은 자사의 모든 제품, 모든 팜플렛에 올 한해 동안 ‘돼지콜레라 박멸’에 관한 내용을 실어 배포하고 있다.

여러마디 말보다 올바른 행동으로

1남 2녀, 3남매를 두고 있는 서정범 회장은 가훈 또는, 자신의 아들, 딸들에게 평소에 지키기를 바라는 기준을 묻는 필자의 질문에 다음과 같은 대답을 준다.

“내가 집에서 가훈으로 정하고 아들, 딸들에게 지킬 것을 바라는 그런 좌우명은 없습니다. 일상생활을 함으로써 실제로 보고 느끼는 것이 그들에게는 가훈이 될 것입니다. 내 생활이 올바르지 않는 삶이 아니며, 할머니가 계시는 우리 집안에서 스스로 보고 느끼는 것이 다름아닌 가훈이 될 것입니다”.

그는 여러마디 말보다는 실제 생활의 실천을 통해 보고, 느끼며, 몸에 밸 수 있는 것이 참 교육이라는 진정으로 뜻깊은 말을 전한다.

모든 일에 기본적인 원칙을 가장 중요시 한다는 동물약품협회 서정범 회장은 항상 건강하며, 밝게 살고 있다. 그는 행동에 있어 표리가 없다고 주위의 사람들은 이야기한다. 즉, 안팎이 없는 것이다. 욕에도 티가 있을 수 있지만 서 회장은 그걸 숨기려고 하지는 않는다.

서정범 회장은 어떤 일을 이루었다고, 어떤 일을 했다고 떠벌이지 않는다. 그는 동물약품업계 40년 세월에 무엇인가를 남겨 놓기위해 노력하지 않는다. 서 회장은 말한다. ‘지난간 다음에야 흔적이 남는 것’이라고. <취재 : 조진현> **양돈**

